

2022년 8월의 소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3:4)

여호와와 나의 목자

이번 달은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중국의 대대적인 대만 봉쇄 군사훈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대만해협에 인접한 주베이 교회에 갈 때면 공군기가 비행하는 소리가 귀를 찌르듯 들립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 큰 동요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접하는 일반 시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불감증, 무력감 속에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道教의 최대명절 中元節을 맞아 곳곳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산과 바다로 여름 휴가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길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속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시급함을 느낍니다. 대만은 영적으로 지금이 위기이자 전환의 기회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 협력교회

1. 삼성 교회

7월 사회적 배려 아동을 위한 여름 캠프 이후에 8월부터 주일 오후에 어린이 서예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교인 중 은퇴 교사가 재능기부를 하여 1기를 시작하였는데 7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고 모두 불신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삼성교회 담임 목사 부부는 주일학교 전문가이지만 인근의 큰 교회로 어린이들이 다 몰려가므로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원주민 부락에 올라가 1박을 하며 교우 심방을 하였습니다. 본래는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하며 산상 집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교우가정을 심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심방하고 주일에 같이 산에서 내려와 예배에 참석했는데 처음으로 20명이 대면/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풍성한 식사교제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함께 식사를 못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방역을 지키면서 애찬(식사)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후 교우들과 기념 사진



주일 오후 어린이 서예교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애찬

2. 홍산 교회

8/19일에 ‘주의 종 찬양단’ 단합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전원이 다 참여하여 등산을 하였는데 2,000m를 웃도는 높은 산이어서 거의 차로 올라갔습니다. 대만은 3,000m가 넘는 산이 260여개가 될 정도로 고산 국가입니다. 홍산(橫山)은 ‘산이 늘어서 있다’는 뜻으로 주변에 산이 많고 인구는 95% 이상이 객가족, 나머지 5%가 원주민으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30여년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홍산지역의 유일한 교회인데 여전히 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30여년을 이 자리를 지켜오신 목사님은 객가 신학원에서 강의하시면서 교회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사 부부가 뒤를 이어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처음에 목사님 부부와 전도사 부부만이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희 부부를 보내주셨다며 감격해하십니다. 저희의 사명은 이들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의 목적은 성경 본문에 곡을 붙여서 보다 말씀을 쉽게 암송하고 목상하게 하는 것인데 녹음에 참여하는 목회자들도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목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 찬양단’ 찬양 녹음하는 모습



찬양단 산상모임을 갖고 기념 촬영

3. 주베이 교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주베이 교회는 해변가 객가 마을에 있습니다. 그 곳에는 교회 하나도 없으며 도교/불교 사원은 300여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마전도사님(75세)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남은 생애의 사명으로 알고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와 목양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번 예배 때는 여러 이유로 참석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도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특히 생각나는 한 자매를 꼭 보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시작 한시간 전에 그 자매가 온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환영을 했더니 본래 관리실에 물건을 놓고 가려다가 잠깐 들렀다면서 우리 부부가 일찍부터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를 예배실로 인도하여 기도해 주며 말씀을 간단히 나누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 시간에 올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더니 매우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점심시간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 후 오후에도 모임을 가졌더니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배에 참석 못한 교우들과 오후에 교제

● 신학원 협력사역 준비

대만에는 약 20여 곳의 신학원이 있는데 비교적 알려진 신학원은 10곳 정도로 한국에 비하면 그 규모나 학생수에 있어 매우 부족합니다. 가장 큰 신학원은 대만 기독교장로회 신학원(台南, 台灣, 玉山)으로 신학은 자유주의 성향이 지배적이지만 목회현장은 보다 다양한 편으로 저희가 협력하는 베이따 교회는 복음주의 성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후손이 세운 중화복음 신학원, 개혁신학원, 루터교 신학원, 객가 선교 신학원 등이 주요 신학원이고 그 밖에 독립교단의 소규모 신학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야의 십자가> 책이 출간되면 이들 신학교에 보급하고 초청 특강을 통해 신학생들에게 선교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객가 신학원과 중화복음 신학원에 이어 타이난(台南) 신학원 원장님으로부터 책의 추천서와 선교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 책이 대만의 신학원에서 선교 추천도서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12주 코스의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강좌”를 개설하여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십자가 영성을 깨우고 선교의 비전과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교회는 큰 부흥을 채 맛보지 못하고 침체기에 접어드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핍박도 없고 부흥도 없는 미지근한 교회가 많다 보니 목회자들도 뜨거운 사명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접했다면 대만에서는 자유는 있으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일깨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삼성 교회:**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설계에 재능기부를 해 주실 분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 전도를 위한 서예 교실이 1기를 잘 마치고 2기 수강생이 잘 모집되도록
2. **홍산 교회:**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여 예배에 장기 결석하는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3. **주베이 교회:** 현재 아파트에서 2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약이 많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적절한 장소를 찾도록
4. **베이따 장로교회:** 매주 금요 기도회에 기름부으사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며 장차 선교적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5. **따푸 교회:**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선교의 사명을 깨우며, 지역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6. **신학교 사역:** 보다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십자가 영성과 선교’를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언어와 체력을 겸비하도록

2020년 8월 26일

대만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